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오른쪽)과 토마스 에스 몬스 부대관장(위쪽)이 대관장단 연례 성탄절 영적 모임에서 전세계의 시청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대관장단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도록 강조

2004년 12월에 있었던 대관장단 연례 성탄절 영적 모임에서 대관장단은 구세주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고 간증했으며 회원들에게 주님의 삶을 본보기로 삼을 것을 권고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 즉 지상에 사셨던 유일하게 온전하셨던 분을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말씀했다. “그분을 능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에 비교될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위대한 모범이시며, 우리가 공경하는 스승이시며, 가장 중요하게는 ...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교회 회원들은 대관장단 연례 성탄절 영적 모임에서 대관장단, 물론 태버나클 합창단 및 템플 스퀘어 오케스트라가 구세주에 대해 말씀하고 노래하는 광경을 위성 방송, 인터넷, 텔레비전 및 라디오를 통해 시청하거나 청취했다.

“이곳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컨퍼런스 센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가 말씀드릴 때 우리의 모습이 ... 온 땅으로, 즉 겨울과 여름을 맞은 ... 땅으로 ... 전송됩니다.”라고 힝클리 대관장은 말했다. “우리 모두

는 커다란 한 가족으로 성탄절의 기쁨을 노래하고 말합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힝클리 대관장은 지상에서의 구세주의 생애에 관해 처음부터 끝까지, 탄생에서 속죄에 이르기까지 가르쳤다. “우리가 노래와 이야기, 선물과 세속적인 물건을 가지고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께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요한복음 3:17) 하시려 세상에 오셨다는 보다 위대한 메시지를 결코 잊지 않도록 합시다.

“그분의 무한한 속죄를 통해서 구원이 모두에게 오게 될 것이며,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승영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합시다.”

힝클리 대관장은 또한 그분의 사망 후와 다가올 세상에서도 계속되는 구세주의 성역에 관해 이렇게 간증했다. “그분은 또 하나의 경륜의 시대를 인도하기 위해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천년을 시작하시고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서 다스리시기 위해 그분은 영광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교회 대관장은 또한 199년 전에 태어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경의를 표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경륜의 시대 최초의 예언자가 구세주에 관해 남긴 간증에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더했다. “그분은 살아 계신, 눈부시고, 숭고하신 임마누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 계신 아버지의 영원하신 아들로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위대한 창조주,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구세주, 어둡고 혼란한 세상에 있는 놀라운 빛입니다. 그분은 살아 계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걱정애 잠긴 우리의 마음에 위안을 주시며, 우리의 가장 커다란 꿈을 성취하도록 도와 주시며, 우리 영혼의 불사불멸을 보증하십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대관장단 제1보좌인 토마스 에스 문슨 부대관장은 “크리스마스의 영(Spirit of Christmas)이 지닌 참 의미를 파악하려면, Spirit of Christmas에서 마지막 세글자(mas)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Spirit of Christ)이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간증했다.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아기의 탄생으로 위대한 선물, 무기보다도 강한 권세, 가이사의 동전보다도 더 오래가는 부가 나타났습니다. ... 구유를 요람 삼아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분은 필멸의 인간으로서 지상에서 생활하고 또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영화로운 복음은 세상의 사고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 해의 이 축복 된 절기에, 우리가 구세주의 발자취를 따를 때,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문슨 부대관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원리에 자신을 재헌납하기에 지금 ... 보다 더 좋은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

대관장단 제2보좌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대공황기 동안에 부친에게 성탄절 선물을 사줄 돈이 없어 그 해에 매일매일의 선행을 기록한 일기를 선물했던 한 사람에게 관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천세에서 있었던 천국 회의에서 주님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아브라

함서 3:27)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모세서 4:2)라고 제안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인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

힝클리 대관장 미국 동남부의 회원들과 선교사들에게 말씀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주에 있는 12,000명의 교회 회원들이 모여 11월 20~21일에 개최된 지구 대회에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칠십인 회장단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의 말씀을 직접 경청하거나 11개 스테이크에 중계된 위성 방송을 통해 시청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현재 보수 공사가 진행중인 솔트레이크 태버나클의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을 비유로 들며 의로운 기둥들에 관해 말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신권役員 모임, 총회, 선교사들과의 모임에서 말씀을 전했다.

벨라드 장로는 선교사들을 위해 새로이 시작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선교 사업에 관해 말씀했다. 그는 회원들이 참되다고 알고 있는 것을 나누겠다는 소망, 힘, 용기를 지니라고 권고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교회의 새로운 회원들을 양육

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책임을 주고, 복음의 가르침으로 그들을 양육하라고 회중에게 권고했다.

또한 모임 중에 바바라 벨라드 자매, 케시 크리스토퍼슨 자매, 북미 동남 지역의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인 더블류 블레이크 손 장로, 그리고 손 장로의 부인인 케이 자매가 간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열린 지구 대회를 위해 스테이크 센터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 촬영: 그레그 웨일 / CHURCH NEWS 제공

증했다.

대회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웨스트 컬럼비아 스테이크에서 열렸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 컬럼비아, 홀로렌스, 그린빌, 그린빌 이스트 스테이크, 그리고 조지아의 올버니, 오거스타, 콜럼버스, 더글러스, 메이컨, 서배너 스테이크가 위성을 통해 대회에 참여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컬럼비아 선교부에서는 선교사들이 선교사 모임에 참석했으며 또한 조지아 메이컨 선교부의 선교사들이 위성을 통해 참여했다.

총회가 시작되기 3시간 전에 문이 열리자마자 회원들이 웨스트 컬럼비아 스테이크 센터를 가득 메웠다.

“제 인생에서 가장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사우스캐롤라이나 웨스트 컬럼비아 스테이크 뉴베리 지부에서 온 17세

의 아만다 계딩스는 소감을 밝혔다. “영을 그렇게 강하게 느낀 적이 없었으며, 제가 이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지구 대회로 인해 헝클리 대관장은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세 번째 방문하게 되었다. 과

거에 그는 1999년에 있던 사우스캐롤라이나 컬럼비아 성전 헌납과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1895~1985년)의 보좌로 봉사할 때 있었던 대회를 위해 방문했었다. ■

Church News, 2004년 11월 27일자 기사에서 요약

넬슨 장로 15일 동안 아프리카 6개국 방문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와 칠십인 회장단의 매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가 11월 8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의 아프리카 방문 동안 두 지역 회장단의 도움을 받아 스테이크 및 지방부 대회를 감리하고, 두 번의 세미나에서 선교부장들을 가르치고,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가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잠비크, 짐바브웨의 회원들과 선교사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여기 계신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나라를 떠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어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참된 특권입니다.”라고 넬슨 장로는 말했다.

에티오피아의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에서 넬슨 장로는 복음 전파를 위해 이 나라를 헌납했다. 그날 오후 그는 약 200명의 에티오피아 회원들과 그들의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



교회 회원들이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가 감리한 스테이크 대회가 끝난 후 짐바브웨의 하라레 국제 센터 밖에 모여 있다.

사진 촬영: 그레그 윌 / CHURCH NEWS 제공

했다.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벨슨 장로는 나이지리아에 있는 22개 스테이크 가운데 하나인 나이지리아 포트하커트 스테이크 대회를 감리했으며, 이 사이 베이트먼 장로는 가나로 여행하여 그곳에서 가나 스웨드루 지방부 대회를 감리했다.

가나에서 베이트먼 장로와 만난 벨슨 장로는 11월 16일에 가나 아크라 성전 인근의 가나 아크라 크리스찬보어 스테이크 센터에서 1,600여 명의 회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벨슨 장로와 베이트먼 장로는 선교부장 세미나에 참여했다. 그런 다음 베이트먼 장로는 모잠비크의 마푸토로 여행하여 그곳에서 지방부 대회를 감리했다.

벨슨 장로는 짐바브웨의 하라레로 여행하여 그곳에서 짐바브웨 하라레 스테이크 대회를 감리했으며, 교회 복지 프로그램의 운영도 살펴보았다. 짐바브웨 특유의 경관 속에 자리한 교회 집회소들 주위에는 채소 농장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회원들은 자신들의 식량을 위해 씨를 뿌리고, 재배하고 수확을 거두고 있다.

“복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로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며, 그곳에서는 어느 누구도 굶주리지 않고, 어느 누구도 실업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위해 일합니다.”라고 벨슨 장로는 말했다.

벨슨 장로는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에 관해 말했다. “교회는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움이 시급히 필요한 세상에서 교회는 빛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아프리카 회원 여러분, 복음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

Church News, 2004년 12월 4일자 기사에서 요약



2004년에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이 재헌납되기 전에 브라질의 파카엠부 경기장에서 회원들이 공연을 하고 있다.

기념하십시오!

러렌 포터 곤트, 교회 잡지

음악, 무용, 연극을 통해 말일성도들이 성전 헌납, 역사적 기념식, 그리고 복음의 완전한 기쁨을 기념하고 있다.

오렌지색! 노란색! 푸른색! 빨간색! 2004년 1월 10일 아프리카 전통 의상을 입은 2,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가나 아크라 성전 헌납 전날 장엄한 모습으로 춤출 때 온갖 색이 가나의 야외 경기장을 가득 메웠다. 말일성도 청소년들도 조상들이 썼던 것과 같은 단순한 악기를 연주하며 서아프리카의 전설에 기초하여 음악과 무용을 공연했다. 가나에서의 이 행사는 성전 헌납이나 재헌납을 기념하기 위해 2004년에 전세계에서 개최된 다섯 개의 기념 행사 가운데 처음 열린 것이었다.

그 다음 달에는 알래스카의 앵커리지에서 말일성도들이 성전 재헌납을 기념하면서 같은 기쁨을 나타내 보였다. 그들의 과거를 상기시키는 의상을 입은 600여 명의 교회 회원들은 알래스카 원주민들의 문화적 유산을 기념하는 전통 음악 프로그램을 공연했다.

2004년의 기념 행사 가운데 가장 큰 행사는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 재헌납이 있기 전인 2월 21일에 열렸는데, 여기서 8,000여 명의 말일성도와 1,200여 명의 선교사들은 파카엠부 야외 경기장에서 60,000여 명의 관중을 위해 계속 내리는 비 속에서 노래하고 춤추었다. 상파울루 전역에서 수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위성 방송을 통해 기념 행사를 지켜봤다. 거의 70,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브라질 국가를 장엄하게 부른 뒤에 대형 브라질 국가가 운동장을 물결 칠 때 분위기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덴마크에서는 2004년 5월 22일, 덴마크 코펜하겐 성전의 헌납 전날에 독창곡 “Come light, come truth”가 4,0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앙의 다리’라는 작품의 막을 열었다.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에서 온 말일성도들은 중세풍 복장을 입고 중세에 살았

던 사람들이 청원을 하듯이 전통 음악을 불렀다. 그들의 공연은 회복된 복음과 성전의 건축이 어떻게 그들을 빛과 진리로 이끄는 “신앙의 다리”가 되었는지를 극으로 보여 주었다.

정확히 3주 후에 뉴욕의 Radio City Music Hall에서는 맨해튼의 많은 지역의 민족적 다양성을 나타내는 수천 명의 십대 청소년들이 브로드웨이 연극 중에 나오는 곡들을 노래하고 춤추며 공연했다. 뉴욕 맨해튼 성전의 헌납 전날인 2004년 6월 12 일에는 기념 행사가 열렸다. 5,300여 명의 만원 관중들은 두 시간 동안 화려한 의상, 활기 넘치는 무용 동작, 친숙한 뮤지컬 음악을 만끽했다.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이런 기념 행사들은 과거의 교회 개척자들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하루의 끝무렵에 손뼉을 치고 치마를 휘두르며 춤추는 말일성도 개척자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해준다.

그런 행사에 관해 한 개척자는 이렇게 적었다.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고 50 쌍의 부부가 나이에 관계없이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 단 하나의 바이올린이 내는 경쾌한 소리에 하나가 되었다.”¹

교회 기념 행사에 힘을 보태고자 하는 첫 시도는 어쩌면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나부 취주 악대 결성이었을 것이다. 나부 군단의 공개 훈련에 동행하기 위해 1842년에 결성된 이 악대는 악대장인 윌리엄 피트의 이름을 따 곧바로 피트 취주 악대로 알려졌다. 악대는 사교 모임, 음악회, 증기선 유람 여행, 중요 인사의 도착, 애국 행사를 위해 연주를 했다. 파이프, 바이올린, 북, 나팔이 형성한 활기찬 음악은 행사에 따라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흥겨움이나 감동의 열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 주었다.

훗날 음악가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에 정착

했을 때, 피트의 취주 악대는 여행에 지친 마차 행렬이 계곡에 도착하자 마자 그들을 맞아주었던 사람들 속에 어김없이 있었다. 솔트레이크 성전 부지가 1853년에 헌납되고, 그 해 4월 6일에 초석이 놓여졌을 때, 두 개의 취주 악대가 음악을 제공했다.

1847년에 한 말일성도는 이러한 활기찬 축하 행사의 장점을 이렇게 요약했다. “나는 이런 기분 전환을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 ... 내 몸을 움직이고 내 마음에 안식을 취할 수 있는 특권을 가져다 준다. 무엇 때문일까? 힘을 얻고 새롭게 되고 활기 띠게 하고 생기 넘치게 하고 활력 있게 하여 내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다.”²

“가장 춤을 잘 추는 종파”

교회의 50주년, 100주년, 150주년 기념 행사와 같은 역사적 주요 기념 행사들은 말일성도들이 과거를 살펴보고 유산들을 기념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기념 행사의 전통은 개척자의 날로 최초의 개척자 부대가 솔트레이크 계곡에 들어왔던 1847년 7월 24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 이후로 매년 말일성도들은 이날을 기념하여 왔다. 1897년에 있었던 50주년에는 축하

행사가 6일 동안 계속되었다. 오늘날 개척자의 날은 야외극, 퍼레이드, 음악, 무용으로 전세계적으로 기념되고 있다.

20세기에 있었던 말일성도 축하 행사의 백미는 1922년부터 1975년 사이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개최된 무용 대축제일 것이다. 상호향상회(상향회) 대회와 연계하여 6월에 개최된 이 축제는 교회 도처에서 출품된 최고의 무용, 연극, 음악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1959년에 8,000여 명이 무용 축제에 참가했을 때, 한 기사는 말일성도를 “가장 춤을 잘 추는 종파”라고 불렀다.³



알래스카 회원들이 앵커리지 성전의 헌납식 전에 공연을 하고 있다.



가나의 어린이들이 아크라 성전의 헌납식 전에 공연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큰 축제가 이어졌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1895~1985년)이 축제

가 지역 단위로 열릴 것이라고 발표한 후 10년 뒤인 1985년에는 13,000여 명의 교회 회원들이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지역 무용 축제에서 100,000여 명의 관중들 앞에서 공연했다.

놀라운 세대

현재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의 인도 아래 교회 대관장단은 이러한 유쾌한 기념 행사를 다시 살릴 것을 요청했다. 2004년 2월 19일자로 지역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지도자과 회원들이 “성전 헌납식 및 역

사적인 행사의 기념식과 같은 특별한 경우와 관련된 행사에 참여하도록 초대 받을 수” 있다고 알려 주었다. 그 서한은 또한 스테이크 및 복합 스테이크 행사와 활동을 가질 것을 지역 지도자들에게 권고했다. 이러한 경험들, 즉 “음악, 춤, 연극, 연설, 운동, 또는 시각 예술”은 “특히 청소년들 간에 친구들을 사귄 수 있는 기회와 유대감을 주는” 데 도움이 된다.

칠십인 정원회의 일원으로 신권부 소속 음악 및 문화 예술과의 고문인 에프 멜빈 하몬드 장로는 활동이 갖는 이런 중요한 측면을 이렇게 강조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께서는 모든 회원들에게 친구가 있어야 한다고 저희에게 권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오늘날 교회에서 활동적인 좋은 친구들을 위해 특별한 필요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가치관이 같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새로이 지어진 뉴욕 맨해튼 성전 인근의 스테이크에서 온 청소년들이 Radio City Music Hall 무대에서 춤추고 있다.

일하고 공연할 때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따른 생활에서 또래 그룹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같은 것을 행하겠다는 소망과 결심이 커집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문화 활동이 그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기억하고 있다. 하몬드 장로는 이렇게 회상한다. “무용을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3,000여 명의 다른 교회 회원들과 함께 복음에 대한 저의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중요한 어떤 것에 속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 젊은 시절에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교회의 음악 및 문화 예술과의 책임자인 데이비드 워너는 이렇게 말한다. “교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문화 예술 활동에 관한 보고를 들을 때 우리는 성공적인 노력이 항상 참여자들을 강화시킨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청소년들이 함께 재미를 느끼고, 시간을 계획하고, 재능을 발전시키고 봉사하기 위해 희생할 때 이렇게 강화되는 계기가 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을 통해 선교사, 부모, 교회 지도자로서 장래에 갖게 될 책임에 대해 준비하게 됩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들을 고양시키고 북돋우기 위해 주님의 영을 구할 때 그들의 삶에서 보다 풍성하게 그 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

그런 축복을 나이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커다란 활동을 통해 얻은 것들은 매우 개인적인 경험들로 이를 통해 마음에 감동을 받고 간증이 강화됩니다.”라고 워너 형제는 말한다.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거나 무용을 통해 뭉친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교회 회원들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조상들의 삶에 미치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풍성한 문화 유

산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말일성도가 된 것을 기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빛이 친구들과 이웃들 앞에서 빛나게 하고 또 와서 회복된 복음의 축복을 누리라고 강력하게 권유합니다.”

성전이 곳곳에 지어지고 또 역사적으로 특별한 기념일을 기념할 때, 그 빛은 계속해서 빛날 것이다. 과거처럼 그 빛은 교리와 성약 136편 28절에 있는 “노래와 음악과 춤과 찬

양과 감사의 기도로 주를 찬양하라”라는 계명에 따르는 충실한 교회 회원들에 의해 전해질 것이다. ■

주

1. Edward W. Tullidge, *History of Salt Lake City*(1886년)
2. A. M. Merrill, “Dancing”, *Improvement Era*, Oct. 1908년 10월, 950쪽.
3. “Dancingest Denomination”, *Time*, 1959년 6월 22일, 47쪽.

새로운 회원의 경험에 대한 기사 모집 안내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축복과 도전,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져다줍니다. 여러분은 새롭게 회원이 된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그 도전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도와 주었으며 그들은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교회 지도자로서 또는 와드나 지부 회원으로서 여러분은 새로운 회원들이 자신의 간증을 강화하고

와드나 지부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어떻게 도와 주었습니까?

새로운 회원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와 경험을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로 보내거나 전자 우편을 통해 cur-liahona-imag@ldschurch.org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명, 주소, 와드 및 스테이크 명칭(또는 지부 및 지방부 명칭)을 적기 바랍니다. ■

대본 출품

교회는 와드/지부 또는 스테이크/지방부에서 사용하기에 적당한 연극 및 뮤지컬 작품을 위해 단막 이상의 대본을 찾고 있다. 모든 언어로 출품이 가능하다. 내용은 사람을 고양시키는 방법으로 복음 원리를 가르치면서 교리적으로 바른 것이어야 한다. 복음을 지향하는 이런 작품은 교회 단위 조직이 함께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작자는 무제한 사용을 위해 비독점적이고 영구적인 사용권을 교회에 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될 것이다.

작품 제출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매년 4월 1일을 마감일로 하여 검토하게 될 것이다.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22×28 센티미터 크기의 종이에 인쇄된 작품 2부와 사용 음악
 2. 작품의 모든 제작 참여자들이 다음과 같은 내용에 서명한다. “제목 _____으로 제출된 작품은 본인의 창작품이며, 본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출품 규정에 맞는 것입니다.”
 3. 동봉 편지에는 작품의 제목, 작자의 성명, 주소, 전화 번호, 전자 우편 주소, 주제, 줄거리, 배역 요건들이 있어야 한다.
- 제출처: Church Theatrical Script Submission, 50 East North Temple Street, Room 2082, Salt Lake City, UT, 84150-6070, USA.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1-801-240-6492로 전화한다. ■

2005년 4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동회 지도자들이 리아 호나, 2005년 4월호에 실린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하는 공과와 유의 사항 및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호의 친구들란 4쪽과 5쪽에 있는 “가족은 영원해”를 참조한다.

1. 아버지, 어머니, 아기가 있는 한 가족을 초동회로 초대한다. 아버지에게는 전세에서의 생활 및 우리가 가족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관해 어린이들에게 간략하게 가르칠 준비를 하도록 부탁한다. 어머니에게는 부모가 아기를 위해 무엇을 하고 또 아기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도록 부탁한다. 가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기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다음 게임을 한다. 초동회 패킷 그림 1-7(또는 가족에 관한 다른 그림)을 복사하고 그것을 여섯 조각으로 자른다. 각 조각에 다음 이름 가운데 하나를 적는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아기가 배워야 하는 것들에 관해 반주자가 “음악으로 된 단서”를 연주할 때 퍼즐 조각들을 어린이들이 옆으로 돌린다.(예를 들어, 침례, 예언자를 따름, 순종 등에 관한 노래나 찬송가를 연주한다.) 음악이 멈추면 어린이들에게 배운 노래와 원리를 찾게 한다. 퍼즐 조각을 들고 있는 각 어린이에게 퍼즐에 적혀 있는 가족이 그 원리를 아기에게 또는 그 어린이의 가족에게 가르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말하게 한다. 노래를 한 곡 부른 후에 한 어린이에게 그가 지닌 퍼즐을 “할아버지”부터 시작하여 제 자리에 놓게 한다. 퍼즐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한다.

2. 우리는 가정에서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방을 네 구역으로 나누어 가정의 네 부분, 즉 거실, 부엌, 침실, 안방을 나타내

게 한다. 어린이들이 간단한 활동을 위해 한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움직일 것이다. 가정에서의 복음 전통을 찾아보기 위해 “거실”에서 성구 찾기 활동을 인도한다.(누가 경건하게 제일 먼저 각 성구를 찾는지를 본다.) 다음 성구를 포함시킨다. 교리와 성약 19:38(기도), 교리와 성약 1:37(경전 읽기), 요한복음 14:15(계명을 지키), 출애굽기 20:12(부모 공경), 교리와 성약 119편(십일조를 냄), 교리와 성약 59:9(모임 참석). 이 성구들이 또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요건의 일부임을 지적한다.

“부엌”에서 어린이들이 간단한 종이 입체 모형을 만들게 한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80쪽 참조) 다양한 음식과 음식 재료의 사진을 보여준다. 보여 준 음식이나 재료들이 그들에게 좋은 것이라면 종이 입체 모형의 입구를 열게 하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입구를 닫게 한다. 어린이들이 가정의 밤에서 종이 입체 모형을 나누도록 권고한다.

“침실”에서 주 기도문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기도하는 방법을 어린이들과 살펴본다.(마태복음 6:9~13 참조) 어린이들에게 태양과 달 그림을 만들어 집으로 가져가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것을 상기하도록 돕는다.

“안방”에서 나이가 많은 어린이들에게 찬송가를 지휘하는 방법을 가르친다.(하나님을 믿는 신앙 지도서, 10쪽 참조) 나이가 적은 어린이들에게는 가정의 밤에서 나눌 수 있는 경전 이야기, 노래, 손으로 할 수 있는 놀이를 가르쳐 준다.

3. 복음 그림 패킷 500(커틀랜드 성전)을 활용하여 커틀랜드 성전에 관해 어린이들에게 가르친다. 복음 그림 패킷 417(엘리아가 가족을 영원히 인봉하는 권세를 회복함)과 그림 뒷면의 내용을 활용하여 커틀랜드 성전으로 엘리아가 왔다는 것과 인봉 권세의 회복에 관해 가르친다. 인봉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오늘날에는 어디서 어떻게 인봉되는가? 성전 사진을 보여 주고, 성전에서 결혼하고 그곳에서 맺은 약속을 지킬 때, 우리는 죽은 후에도 하늘에서 가족으로서 함께 살 수 있다고 설명한다. 성전에 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나의 복음 표준 포스터를 보여 주고, 거기에 성전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를 묻는다. 나의 복음 표준을 살펴보고, 우리가 그 내용에 따라 생활하게 되면 나이가 들었을 때 성전에 참석하기에 합당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친다.

각 어린이에게 선을 그어 반으로 나누는 종이를 한 장씩 준다. 어린이들에게 종이의 반쪽에는 복음 표준 가운데 한 가지에 따라 생활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그리고 다른 반쪽에는 성전에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그리게 한다. 초동회 방에 붙이기 위해 그림으로 콜라주를 만들거나 각 어린이가 자신의 그림을 집으로 가져가 나누고 붙이게 한다. 영원한 가족의 축복에 관해 간증한다. ■



최고로 좋은 것

“**아** 아버지, 지금까지 좋은 것 많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겨울, 큰 아들 일헌이가 미국 뉴저지로 선교 사업을 나가며 가슴에 담아 둔 말 한 마디를 했다. “아버지 ... 감사합니다.”

어느새 아버지 키만큼 자라 자신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큰 아들을 떠올리자 그간 하 형제의 신앙 생활이 낡은 표지를 넘겨 옛 이야기를 시작했다.

“30여 년 전 여수의 돌산 앞

바다에는 중학교 3학년짜리 소심쟁이 한 소년이 살았답니다. 그는 이름이 하봉채라는 아이였지요. 그에게는 하영옥이라는 큰 형이 있었습니다. 형은 소심한 봉채의 성격을 바꿔 주고 싶었더랬어요. 그러던 어느날, 궁리 끝에 형 영옥은 동생을 자신이 다니던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교회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봉채의 성격이 좀 바뀔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봉채는 교회에 가기 시작했고 그해 여름 여수 지부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봉채는 이 교회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여동생 금숙이도 친구인 기준이도 데려왔답니다.”

파르르 기억의 책이 빠르게 책장을 넘기자 추억이 깔깔 개구쟁이 웃음을 터트린다. 신났던 상호향상 모임, 선교사와 함께 했던 활동, 교회 모임으로 즐거웠던 중고생 시절 ... 그러더니 2번의 대입 시험 낙방 후 지원했던 군대 이야기가 나오자 책장이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고 빗방울처럼 떨어진 눈물 자국을 드러냈다.

“동기생들과 헤어져 본부대로 배치된 봉채에게 힘든 이등병 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악발이 같이 성실한 봉채에게 훈련은 그리 힘든 것이 아니었지요. 그가 견뎌내야 했던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봉채는 하루 하루 기도했고 지혜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런 봉채에게 돌아오는 것은 더 힘든 길이었지만 그는 그 길을 용기 있게 택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 제대를 두어달 앞둔 어느날이었습니



대전 스테이크 둔산 와드인 하봉채 형제의 막내 아들 승헌이가 침례받던 날. 뒤에 선 두 딸인 예지와 예은이가 선교 사업 기간 오빠의 빈자리를 대신했다.

다. 봉채는 어느때처럼 고참과 함께 강원도 앞바다에 보초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고참이 물었습니다.

‘봉채 너는 왜 술하고 담배 안하나? 그의 질문에 봉채는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입니다.’ 그러자 고참은 신기한듯 외쳤습니다.

‘이야! 그래? 나도 사실 예전에 그 교회에서 침례 받았어!’

다음날 고참은 내무반 전부를 호출했습니다. 그러고는 이

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봉채에게는 절대 술, 담배 권하지 마라!’”

이렇게 하 형제의 기억의 책은 살아온 이야기를 한없이 풀어놓지만 그 모든 경험과 역경이 그저 축복이기에 그는 과감히 맨 뒷장을 펴고 생각을 정리했다. “어제의 신앙이 오늘의 신앙이 될 수 없고 오늘의 신앙이 내일의 신앙이 될 수 없다. 오늘 하루 신앙을 쌓지 않으면 안되리. 오늘 하루 부름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리!” 이런 다짐 옆에 하 형제는 아내인 권명순 자매와 그의 오랜 소원을 적어 놓고는 다시 선교 사업 떠나던 큰 아들의 말을 떠올린다.

“아버지 소원이 우리 넷 선교 사업 보내고 성전 결혼 시키는 거라 하셨죠? 오늘 그 소원이 25% 이루어졌네요. 축하합니다.”

*다음 호부터는 청소년 개종 이야기가 가족 개종 이야기로 확대 개편됩니다. 가족의 일원이 먼저 개종하여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자녀를 침례의 물가로 인도하여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계시는 회원들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갖고 계시거나 알고 계시는 분들은 한국관리본부 리아호나 담당자 (02-2232-1441 [550 또는 562]), 또는 해당 지역의 리아호나 기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스테이크, 지방부별 자세한 내용은 www.ldschurch.or.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봉~헌혈차 왔습니다!”

2005년 2월, 3월에는 전국 각지의 교회 회원들이 사랑의 혈액을 기증했다. 이번 헌혈 행사는 한국 교회 헌납 50주년 및 요셉 스미스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여 계획되었으며 현재까지 7개 스테이크에서 총 350여 명이 헌혈에 참여했다.

각 스테이크에서는 수개월 전부터 헌혈 행사를 계획했고 헌혈 지원자들은 약속한 대로 행사 장소로 모였다. 스테이크, 지방부 별로 평균 50여 명의 지원자가 준비되었고 우선 문진표에 개인 기록을 작성하여 실제 헌혈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지원자들은 문진표를 기록하여 간호사와 자신의 신체 상태에 대해 일대일로 상담하였다. 아쉽게 체중 미달, 빈혈, 나이, 피로, 감기 등의 이유로 헌혈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 중에는 단순히 신분증 미지참과 같은 사유도 있어서 아쉬움이 컸다. 하지만 앞다퉈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말일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혈액원 관계자들은 아름답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청소년들의 모습에는 교회에서 배운 예수 그

서울 북 스테이크 녹번 와드에 도착한 헌혈차



위: 대전역과 지하 상가 두 곳에서 실시된 대전 스테이크 헌혈 행사에 참여하여 문진표를 작성한 후 간호사와 상담하기 위해 줄을 선 회원들

리스도의 사랑과 봉사 정신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간호사와 상담 후 헌혈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자매들은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는 데 대해 큰 자부심을 보였다. 형제에 비해 헌혈 가능 빈도가 낮은 자매들에게는 이번 행사를 위해 일주일 전부터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이날은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켜 얻은 건강의 축복을 이웃과 나누는 현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헌혈의 종류는 성분 헌혈과 전혈 헌혈이 있는데, 회원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또는 간호사의 권유에

아래: 수정 와드로 온 헌혈차 안에서 혈압 등 개인 건강 상태를 자세히 검진받고 있는 부산 스테이크 소속 자매



따라 자신에게 맞는 헌혈을 선택했다. 성분 헌혈은 자주 할 수 있으나 전혈 헌혈은 마지막 헌혈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한다. 헌혈에 참여한 이들의 동기는 모두 순수하고 아름다웠는데 친구가 백혈병에 걸렸을 때 헌혈을 해본 이후 정기적으로 헌혈 행사에 참여한 형제도 있었다.

특히 서울 동 스테이크, 전주 스테이크 등에서는 헌혈 행사를 기회로 도움의 손길 활동도 같이 실시했다. 이들은 도움의 손길 조끼를 착용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헌혈에 함께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등 순수한 봉사 정신을 실천하였다. 특히 광주 스테이크에서는 이 날 받은 헌혈 증서를 바로 백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같은 스테이크의 자매를 위해 기증하기도 했다.



영동 스테이크 오윤 와드에 마련된 헌혈 행사장에서 헌혈하고 있는 회원들



위: 헌혈을 하고 있는 부산 스테이크 형제(왼쪽)와 대전 스테이크 자매



왼쪽: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헌혈행사에 참여하여 도움의 손길 활동을 펼친 전주 스테이크 회원들



오른쪽: 광주 스테이크 종교교육원 2층에서의 헌혈 후 적십자측에서 마련한 소정의 선물을 받아 든 청남들

미국 최고의 대학생 뮤지컬 공연단 BYU 영 앰배서더스 내한 공연 예정

브리감 영 대학교 뮤지컬 공연단인 “영 앰배서더스”가 5월 17일부터 23일까지 한국을 방문하여 전주(5월 18일), 대구(5월 19일), 서울(5월 21일)에서 각각 공연을 갖는다. 이들은 한국 교회 헌납 50주년을 맞아 특별 초청되었다. 뮤지컬의 본고장인 브로드웨이에서도 최고의 찬사를 받은 곡들(라이언킹, 오페라의 유령, 맘미아 등)만을 엄선하여 무대에 올리는 영 앰배서더스는 1970년부터 거의 매년 세계 각국을 순회 공연할 만큼 기량과 경험이 특별한 팀으로 찬사를 받고 있다. 음대 교수이면서 실제로 미국에서 이 공연을 관람한 적이 있다는 대구 스테이크의 김정애 자매는 여느 프로팀에 못지않을 만큼 뛰어난 공연단을 한국에서 맞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기대감을 표



도움의 손길 - 서울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드세 명의 서울 스테이크 자매들은 한달에 한 번 경복궁 근처에 위치한 “라파엘의 집”이라는 중증 장애 아동 보호 센터를 방문한다. 오전 10시에 도착한 자매들은 앞치마를 두르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14명의 아이들을 위해 점心和 저녁을 준비하는 봉사를 한다. 이런 봉사의 기회는 일년에 열두 번 정도이므로 와드별로는 한두 번 참석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봉사는 약 10여년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비록 한달에 한번이지만 변함없이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봉사가 해당 기관에는 더욱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 라파엘의 집에는 서울 스테이크 자매들처럼 식사 준비를 해주는 봉사자들 외에도 청소, 빨래, 산책 등의 봉사를 하는 여러 자원자들이 방문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해외 소식

오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살고 있는 최송화 자매가 금년 6월 18일부터 열리는 국제 청소년 피아노 대회인 “Gina-Bachauer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에서 10대 1의 오디션을 통과하여 미국 대표로 선정되었다. 세계 각국에서 오디션을 거쳐 32명이 참석하는 이 대회는 국제 청소년 피아노 대회로서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대회와 쌍벽을 이루는 대회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큰 대회이다. 최 자매의 가족은 현재 미국 유타주 샌디 론 픽 스테이크 히든우드 와드에 참석하고 있으며 최 자매는 장미반 제1보좌로 봉사하고 있다. 또한 최자매는 교회, 양로원, 학교 등 여러 기관에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봉사하고 있다.



농기계 수리 판매는 부업일 뿐이죠

“부업으로 농기계 팔고 수리합니다.”

천안의 너른 들판 어딘가에는 천안 와드 감독인 정채영 형제가 8년을 일구어 온 농기계 수리 공장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정 감독이 날이 풀리면 팔려고 직접 제작한 커다란 농기계들이 금방이라도 굴러갈 듯 서있고 그 옆으로는 비닐로 바람막이를 한 공장이 서있습니다. 모습은 이래도 그 공장 안에는 그의 살림밑천과 수리 기구들이 손때 묻은 채로 당장이라도 힘을 쓸 모양입니다. 이 공장의 주인이자 일꾼인 정 감독은 언제나 신이 납니다. 왜냐하면 힘들게 마련한 일터가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천직이라 믿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성도가 있으면 공장 문을 닫고 언제든지 달려가고 농작물이 어김없이 자라는 일요일에도 공장이 아닌 교회에 있습니다. 이런 정 감독은 검게 탄 얼굴에 기름 범벅이 된 옷을 입고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참됩니다!”



우림 장학 재단 장학 증서 수여식



것입니다.’라는 헨리 비 아이어링 사도의 말씀을 인용하여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또한 장학생 대표로 간증을 나누는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라고 간증하여 이 날 모임에 감동을 더하였다.

지난 2월 19일 신촌 와드에서는 ‘재단 법인 우림 장학 재단 장학 증서 수여식’이 있었다. 우림 장학 재단은 이번 2005학년도 1학기를 맞이하여 제5회 장학생 명단을 발표했으며 이날 고등학생 6명과 대학생 18명을 합하여 총 24명에게 장학금과 장학 증서를 수여했다. 이 자리에는 장학 재단 이사장인 최옥환 형제, 장학회 상임 이사인 조양호 형제를 비롯하여 민혜기 장로, 한인상 형제, 김기용 축복사, 이도환 성전장, 복지 선교사인 송평중 장로가 함께 참석하여 장학생들을 축하했다. 특별히 민혜기 장로는 축사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발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만큼, 간증만큼, 지식만큼 한국 교회가 발전할 것입니다.”라고 하며 ‘젊은이들이 교회의 큰 기초가 될

광고

서울 성전에서의 신발 착용

서울 성전장단은 교회 본부와 지역 회장단의 지침에 따라 지난 2005년 3월 8일(화)부터 성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의식 참여자들이 신발을 신은 채 참여자 갱의실까지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신발은 옷장 하단에 준비된 신반 밑에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목이 긴 구두의 경우는 옷장 위에 올려놓으면 된다. 성전장단은 참여자의 신발이 깨끗할수록 성전이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며 성도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나는 다릅니다"

부산 스테이크 광안 와드의 이정훈 형제는 중학교 3학년 때 수정 와드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과 참된 진리에 대한 간증은 봄벌처럼 그를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그 따뜻함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어 새벽 세미나리에 참석했다.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가족들때문에 운동을 한다는 핑계로 매일 새벽 몇 정 거장을 뛰어서 교회까지 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동화 끈을 질끈 매고는 오직 새벽 세미나리에 참석하기 위해 달리고 또 달렸다. 그렇게 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는 세미나리를 졸업하게 되었다.

“청소년 시절 세미나리와 스카웃 활동을 하면서 정서적 안정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낙담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단단하고 깊은 간증으로 청소년 시절을 지낸 이 형제는 선교사업을 다녀온 후 성전 결혼을 했다. 이제 그에게는 천국과 같은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도움이 될 새로운 직장이 필요했다. 그가 보험업이라는 일을 선택한 것은 일종의 도전이었다. “교회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기울인 만큼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을 찾던” 끝에 몸담게 된 것이 바로 생명 보험 회사였다. 그는 입사한 그 순간부터 “게으름을 박차고 열심히” 일했다. 아침부터 밤 열한 시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끊임없이 도전했다. 하루 열 명을 만나면 아홉 번의 만남이 실패로 이어졌지만 그는 결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성공으로 가는 반석이라며 기꺼워했다. 겨울 내내 매서운 바람을 이겨낸 나무들만이 찬란한 꽃을 피우듯 이정훈 형제의 노력과 열정은 곧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매일, 매주, 매월 가장 많은 상품을 판매한 사원으로 이름을 떨쳤고 많은 사람들이 그와의 보험 계약을 원했다.

“저는 단순히 보험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친절, 인격, 성품, 그리고 사랑을 함께 전하는 것이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정훈 형제는 자신의 일생을 관통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일에서도 녹여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한 마음으로 고객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이 형제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 열려진 문이 이 형제에게는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어주었다. 보험인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백만불원탁회의(MDRT)’ 보증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최고의 명예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곳에 최연소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 것이다. 그뿐이 아니었다. 입사한 지 4년 만에 자신의 회사에서 ‘프레지던트FSR’이라는 최고의 직급에도 올랐다. 이런 사실들



이 사외로 보도되면서 그는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하는 등 유명세를 치루고 있다. 곳곳으로 강연도 다니고 있다.

“강연을 하다보면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런 성공을 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분들께 당당하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다녔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교회를 소개합니다.”

낙천적인 성격, 꿈을 갖고 도전하는 열정, 친절과 배려, 긍정적인 가치관, 그리고 사랑 등 지금의 이정훈 형제를 있게 한 훌륭한 요소들은 모두 복음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사랑하기에 주저함이 없다. 바쁜 중에도 교회 일을 하는 것에 만큼은 시간을 아끼지 않으며 부산 스테이크 서기와 와드 선교책임자의 부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단지 신앙과 사랑만이 있었던 그는 “신앙을 가지고 간구하면” 성공에 이를 수 있다는 확고한 간증을 가지고 있다. 늘 남편을 존경한다고 말하는 아내 설경희 자매와의 단란한 가정, 많은 보수와 높은 지위 등 이정훈 형제는 더 이상 바랄게 없어 보이지만 아직도 그의 꿈은 끝나지 않았다.

“저는 교회 안에서 성공해야 진짜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제 첫 번째 목표이고 교회 이름으로 된 복지 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제 마지막 목표입니다.”

이정훈 형제는 그 옛날 세미나리에 참석하기 위해 새벽마다 운동화 끈을 고쳐 맨 것처럼 남은 목표를 위해 오늘도 달리기 위한 준비를 한다. 주님께서 자신을 “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며 미소 짓는 이정훈 형제. 그의 뛰는 발자국 마다 사랑, 친절, 봉사, 열정이 깃들어 있다. (전건우 기자)

주께서 보내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274기 신임 선교사 좌담회



2005년 3월 22일,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274기 선교사들이 무사히 훈련원 전 과정을 마치고 각 임지로 출발했다. 총 17명으로, 이 만큼의 수가 함께 훈련원에 들어온 지도 근 10년만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들을 만났다. 하나같이 앓된 모습들이었지만 눈빛으로 투영되는 선교사의 영은 기자를 충분히 압도하고도 남았다.

기자: 가장 기억에 남는 MTC 과정이 있었다면?

전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인근에서 가진 전도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임지에서 선교 사업이 결코 쉽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준비된 구도자가 많다는 확신도 아울러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성찬식에서 함께 나누는 간증도 결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기자: 선교사로 부름 받기까지 어려움을 겪은 분이 계실까요?

백영진 자매: 선교 사업 부름을 받고 10개월 만에 이렇게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느라 무척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굽히지 않는 신념에 결국은 부모님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자: 오히려 부모님의 설득으로 선교 사업을 나온 분도 계신가요?

한순형 장로: 저는 선교 사업을 나올 소망을 크게 갖고 있지 않았는데, 귀환 선교사이신 부모님의 간곡한 설득과 후원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왜 선교 사업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선교 사업을 하셨던 대전 지역으로 부름 받은 것도 특별한 인연인 것 같습니다.

기자: 선교사 비용을 모으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황찬희 자매: 저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도움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비용을 1년 여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축한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자: 선교 사업을 결심하는 데 청소년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을까요?

전원: 네! 선교 사업을 결심하고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새벽반 세미나를 통해, 또 지도자와 부모님을 통해 선교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굳힐 수 있었습니다.

기자: 새로운 선교사 책자인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공부하셨을 텐데요. 도움이 많이 됩니까?

전원: 대단히 많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었습니다. 또 외워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언어로 가르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간증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책 구성도 매우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느낌도 들고, 특히 성구 학습 부분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기자: 새로운 선교사로서 각오나 간증을 전해주시겠습니까?

이성찬 장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힘들 때마다 자칭 "회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해 오고 있는데, 바로 성찬 찬송을 부르고 교리와 성약 24편 8절을 읽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제 개인의 어려움쯤이야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혜선 자매: 저는 부산 선교부로 부름 받았습니다. 왜 그곳으로 부름 받았는지, 그 이유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교사님의 말씀처럼, 저만이 마음을 열어드릴 수 있는 분이 그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부름 받았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기꺼이 가겠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요구하시더라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훌륭한 선교사 훈련원의 지도자들이 빚어낸 이 열일곱 명의 선교사들이 각자의 임지에서 주님의 사업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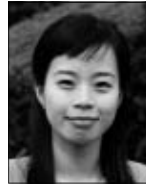
한국 선교 훈련원 제274기 (한국 17명, 해외 2명)



강혜선
안양 스테이크
안산 와드
부산 선교부



신수경
대구 스테이크
영천 지부
대전 선교부



조영원
순천 지방부
순천 지부
서울 선교부



한순형
부산 서 지방부
구포 지부
대전 선교부



김세현
부산 서 지방부
김해 지부
서울 선교부



이성찬
부산 스테이크
방어진 와드
대전 선교부



진성모
전주 스테이크
중앙 와드
서울 서 선교부



황찬희
부산 서 지방부
구포 지부
대전 선교부



박덕진
동대문 스테이크
회양 와드
부산 선교부



이충기
서울 동 스테이크
장위 와드
부산 선교부



차현준
강서 스테이크
부천 와드
부산 선교부



김홍경
대전 스테이크
공주 와드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선교부



배문철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
부산 선교부



장효진
동대문 스테이크
동대문 와드
대전 선교부



최민욱
안양 스테이크
평촌 와드
부산 선교부



이혜지
광주 스테이크
중앙 와드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선교부



백영진
마산 스테이크
진주 와드
서울 서 선교부



정해상
대전 스테이크
선화 와드
부산 선교부



한민숙
동대문 스테이크
동대문 와드
부산 선교부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광주 스테이크

농성 와드 감독: 최중배 (전임: 하일)

마산 스테이크

풍호 와드 감독: 정일중 (전임: 이승근)

서울 동 스테이크

상계 와드 감독: 배상기 (전임: 이춘호)

서울 북 스테이크

일산 와드 감독: 하태완 (전임: 이상형)

청주 스테이크

제천 지부 지부장: 김영운 (전임: 정진용)

해외 거주 기자 모집

미국, 일본, 캐나다를 비롯한 해외 주재 리아호나 지역 소식 기사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 chohs@ldschurch.org 또는 전화 82-2-2232-1441 (550)로 연락해 주시면 추후에 이메일이나 전화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정정 기사

지난 3월호 교회 소식 6쪽에서 "청소년 영적인 모임의 방송 계획"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청소년"이라는 낱말은 "청년"을 잘못 옮긴 것이기에 바로 잡습니다.